

『朝鮮王朝實錄』 字形檢討

— 鼎足山本 太祖, 太宗 『實錄』을 중심으로 —

趙成德*

초록

본고는 정족산본 『朝鮮王朝實錄』의 漢字 異體字形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기초 작업이다. 『實錄』은 오랜 기간에 걸쳐 편찬된 歷史書인 만큼 時代나 편찬시기에 따라 여러 자형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정족산본 『태조실록』 권1, 『태종실록』 권1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고에 열거한 유형은 『韓國文集叢刊』에 나타나지 않은 자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제자와 동일한 원리의 자형이 있을 경우 예시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1) 기존 筆劃의 형태가 추가되거나 변형된 유형'에서 巨, 幹, 雖, 3種, 2) 글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중복되는 필획이나 일부 필획을 생략한 유형'에서 兩, 資, 稷, 兎, 4種, 3) 유사한 構件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한 유형'에서 殊, 昏, 留, 助, 醉, 擒, 爨, 7種의 자형은 中國의 字書와 日本의 『難字異體字典』, 韓國의 『高麗大藏經異體字典』에 나타나지 않았다. 『太祖實錄』에서는 '荅' '萬' '等' '蕭' '著' '茅' '單' '悉' '黃' 등의 윗부분에서 '+-ㅍ'의 변화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太宗實錄』에서는 '價' '貢' '須' '寔' '殊' '貧' '資' '積' '眞' 등의 아랫부분에서 '貝-貝'의 형태의 자형이 자주 나타났다.

中國字書와 비교 검토한 결과 주로 碑文과 隸書에 관련한 책에 『實錄』과 동일한 자형이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5件의 字形은 中國과 日本의 字書에 나타나지 않았다. 漢字文化圈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實錄』의 일부를 검토한 결과 他國의 字書와 『文叢』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형과 『실록』만의 독특한 자형이 눈에 띄었다.

* 韓國古典翻譯院

Abstract

本论文是为分析鼎足山本《朝鲜王朝实录》的汉字异体字字形研究的可行性而进行的基础工作。《实录》是经过长时间编写的历史书籍，因此根据不同时代或编写时期，形成了不同的字形。

本论文主要对鼎足山本《太祖实录》卷1、《太宗实录》卷1进行分析。本论文所涉及到的字形不包括在《韩国文集丛刊》里面，但为与标题字同样原理的字形提供了例子。

本论文所提出的下面三种情况，未能发现在中国的字书和日本的《汉字异体字典》以及韩国的《高丽大藏经异体字典》上。

第一、在现有笔划的基础上添加或变形的类型当中，**巨**、**幹**、**離**等三种。

第二、在不影响字形识别，但笔划重叠或部分笔划被省略的类型当中，**兩**、**賚**、**稷**、**兇**等四种。

第三、在变为类似的构件或新形式的类型当中，**狝**、**谷**、**留**、**助**、**睥**、**揄**、**纒**等七种。

在《太祖实录》中，经常会发现在“**答**、**薦**、**茅**、**蕭**、**著**、**茅**、**草**、**葱**、**黃**”的上方出现“+-”的变化。在《太宗实录》中，在“**僧**、**首**、**須**、**審**、**狝**、**首**、**資**、**積**、**首**”的下方可以发现“具一”的字形。

与中国字书相比较，主要在与碑文和隶书相关的书籍里可以发现与《实录》相同的字形，其中超过一半的十五个字形没有在中国和日本的字书里面。虽然我们未能对汉字文化圈的整个资料进行调研，但是分析《实录》的部分内容后得出的内容，是《实录》里面可以发现在其他国家的字书和《文丛》里不能看到的字形和《实录》独具特色的字形。